

‘패션넷’ 국내 대표 섬유패션 빅데이터 정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

한국섬유산업연합회 보도자료 (2021. 07. 05.)



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국내 섬유패션 빅데이터 정보 플랫폼 ‘패션넷’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독보적인 데이터 기반 정보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.

- 플랫폼 ‘패션넷(www.fashionnetkorea.com)’은 2021년 상반기(1월~6월) 패션넷 이용자 수는 월평균 6,702명으로, 전년 월평균 이용자수 3,379명 대비 98% 증가했으며, 페이지뷰 수도 522,981건으로 2020년 연간 페이지뷰 수 335,190건을 훌쩍 넘어섰다.
-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기반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와 페이지뷰 수가 급증한 결과로 분석
- 2021년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이 본격화되어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이 전년대비 1.5배 증가하면서,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실무자들의 패션넷 활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
- 패션넷은 오는 8월 사용자 맞춤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대폭 리뉴얼하여 섬유패션 데이터를 시각화한 대시보드, 사용자 유형에 따른 콘텐츠 추천, 개인화 페이지, 회원제 F-Point* 운영 등 서비스 중심으로 바뀐다.
- 패션넷 활용기업으로 F-Partners** 를 선정하여 서베이 기반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동향과 데이터 기반 트렌드 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.

* F-Point :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 회원제 운영을 위한 서비스

** F-Partners : 분야별 수혜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

- 섬산련 관계자는 섬유패션업계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패션넷의 업계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

